

최근 '5경기 46실점' 졸전 연속... '반등' 대신 '급락'

KIA, 팀 분위기 '빨간불'...올시즌 최대 위기

민었던 선발마저 '와르르'... 잦은 실책에 꺼져버린 승부사 기질
'결과보다 아쉬웠던 과정' 경기 외적 구설까지 겹쳐 분노한 팬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성적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패와 대량 실점 속에 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25일 기준, KIA는 54승 57패 4무로 8위에 머물러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4위를 지키며 반등을 노렸지만, 순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직격탄은 최근 홈 4연패였다.

키움과 LG를 상대로 2연속 루징시리즈를 기록하며 안방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뼈아팠다.

5경기에서 무려 46점을 내주며 마운드가 붕괴됐다. 경기당 9점이 넘는 실점은 졸전 그 자체였다.

선발진은 대부분 이닝 소화가 부족했고, 볼펜은 흐름을 끊지 못했다.

수비에서도 잦은 실책이 이어지며 패배를 자초했다.

이 기간 선발 평균자책점(ERA)은 10점대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에 처했다.

다펜딩 챔피언의 마운드가 보기 어려운 성적표다.

방망이도 힘을 보태지 못했다.

공격의 패턴은 단조로웠고,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중심 타선조차 제 몫을 하지 못하며 추격의 불씨가 번번이 꺼졌다. 강팀다운 이미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결국 승률도 5할 아래로 내려앉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한층 짙어졌다. 구단 공식 SNS에는 경기력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이 상태로는 가을야구도 어렵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경기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팬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외적인 논란까지 겹쳤다. 한 선수가 지난 21일 경기 후 개인 SNS에서 팬과 언쟁을 벌였고, 부적절한 표현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구단은 25일 해당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선수도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필



지난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LG의 경기. 이범호 KIA 감독과 코치진들이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요한 논란이 팀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연패에다 외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팀 분위기는 이중 악재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전력 회복이다. 최근 5경기에서 드러난 대량 실점은 선수단 전체의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운드 재 정비와 수비 안정 없이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타선 또한 득점 패턴을 다양화하고 연결 고리를 살려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

경기력 회복과 내부 분위기 수습이 최우선이

다.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변명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KIA는 지난해 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왕조 재건을 꿈꿨다. 그러나 시즌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최대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주홍철 기자

'프리킥 원더골'...손흥민, MLS 데뷔골 터졌다

MLS 데뷔 3경기 만에 마수걸이 득점
2주 연속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선정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 FC의 공격수 손흥민(33)이 데뷔 3경기 만에 기막힌 오른발 프리킥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를 작렬했다.

손흥민은 24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달러스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에서 전반 6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6분 데니스 부앙가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의 키커로 나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달러스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이로써 지난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도움을 작성하며 LAFC 유니폼을 입고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던 손흥민은 MLS 데뷔 3경기 만에 'MLS 데뷔골'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LAFC는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전반 13분 달러스의 로진 패링턴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무승부를 기록, 2연승에 이르지 못하고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에 만족해야 했다.



동료들과 득점의 기쁨을 나누는 손흥민

/AP=연합뉴스

손흥민은 이날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일주일 전 뉴잉글랜드전에 이어 2주 연속이자 두 번째로 POM에 뽑혔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중계 방송사와의 스탠딩 인터뷰에서 아쉬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에 적응하고 있다.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단계"라며 "팀에 합류한 지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MLS와 LAFC에서 첫 득점에 성공한 것은 기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을 따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선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진 테니스 꿈나무 윤다경·김예울·김명관

유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전문·학교·생활체육 선수환 입증 주목

강진 테니스 꿈나무들이 한국 테니스 미래의 주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 "강진군 에이스테니스 스포츠클럽 윤다경(강진동초 6년), 김예울(강진동초 5년), 김명관(강진동초 5년)이 테니스 유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비군 선발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선수환 시스템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윤다경은 백핸드를 주무기로 전국소년체전

에서 은·동메달을 따내며 초등부 여자 랭킹 7위에 올라있는 '차세대 에이스'로 불린다.

좌우 코스 공략과 다운드라인 공격이 주무기인 김예울은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후원선수로 발탁돼 2025년 KETF 국제 주니어(U-12) 테니스대회 단식 2위, 말레이시아 ATF대회 복식 2위 등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도 수준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초·중등 여자랭킹 11위에 랭크돼 있다.

체력과 파워가 장점인 김명관은 포핸드 및 백핸드 모두 수준급 기량으로 백다운드라인 공격이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며 초등 남자랭킹 12위에 자리했다.



유소년 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된 강진 에이스 테니스 스포츠클럽 소속 윤다경(왼쪽부터), 김예울, 김명관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 선수 모두 7세 무렵 매직테니스를 통해 라켓을 처음 잡은 뒤 강진 에이스테니스 스포츠클럽에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키워왔다.

지난 20일까지 용인 명지대에서 열린 '2025년 꿈나무전수 하계합숙훈련'을 소화한 이들은 9월부터 전국 테니스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실전 경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더 빠르게...' 프로야구, 2년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삼성, LG, 롯데, 두산, 한화 100만 관중 '↑'...278경기 매진 단일 시즌 최대



프로야구가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2025 KBO 리그가 지난 23일 '야구의 날'을 맞아 시즌 누적 관중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올 시즌 587경기째, 총 1천8만 8천500명이 야구장을 찾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천만 관중 기록을 세웠다.

특히 기록 달성 속도가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671경기 만에 1천만 관중에 도달했으나, 올해는 무려 84경기를 앞당기며 역대 최소 경기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까지 올 시즌 평균 관중은 1만7천187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7% 증가했다. 또한 전체 좌석 점유율은 82.9%를 기록 중이다.

2025 KBO 리그는 지난 3월22일 개막 후 4월6일 역대 최소 경기인 60경기만에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이후 계속해서 역대 최소 경기 100만 단위 관중 기록을 경신했으며, 역대 최초로 전반기 700만 관중을 달성한 바 있다.

후반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관중 동원은 계속됐다. 7월24일 800만, 8월8일 900만을 넘어,

시즌 전체 720경기 중 81.5%를 소화한 시점에서 1천만 관중을 달성했다.

KBO 리그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

KBO 리그에서 현재 총 관중 1위는 133만 816명의 삼성, 2위는 128만7천2명의 LG, 3위는 126만7천866명의 롯데다. 이어 두산이 120만3천937명이고, 한화가 101만1천110명이다.

역대 KBO 리그 단일 시즌 구단 최대 관중은 2024시즌 LG의 139만7천409명이다.

올 시즌 평균 관중은 1만7천187명으로 역대 최초 1만7천명 대를 바라보고 있다. KBO 리그 역대 최대 평균 관중은 2024시즌의 1만5천 122명이다.

또한 전체 587경기 중 278경기가 매진돼, 2024 시즌에 세운 단일 시즌 최대 매진 기록이었던 22차례 매진 기록도 이미 경신했다.

여름 막바지에 들어섬과 동시에 가을야구행 티켓을 두고 다수의 팀이 펼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시즌 세웠던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인 1천88만7천705명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홍철 기자

전남바둑 김현석, 대통령배 최강부 우승

2026 세계아마바둑선수권 국가대표

전남바둑협회 김현석(19·장수영바둑도장)이 최고 권위의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석은 최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최강부에서 전국의 강호들을 연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월 열린 제19회 김해시장배 전국 바둑대회에 이어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현석은 2025년 제46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WAGC)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김현석은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한 뒤 8강에서 심의현(울산시바둑협회)을, 4강에서 최우수(경기도바둑협회) 등을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대통령배 4연패에 도전하는 김정선(경기도바둑협회)을 상대로 막



제7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최강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현석.

〈전남도체육회 제공〉

상막화의 접전을 펼친 끝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김현석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해 올 시즌 3관왕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